강정 민간마리나 개발 또다시 표류하나

도, 세차례 재공고 끝 우선대상자 선정에도 협상 지연
6월 추진 계획 차질 우려… 강정 마리나 '반쪽 운영'

강정 민간마리나 개발사업이 또다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세차례 재공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시금 표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10일 강정 민간마리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을 통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도는 최근 사업자에게 향후 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협상 진행 의향에 대한 답변을 오는 8일까지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우선협상 사업자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오는 6월부터 어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재공모 등 대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강정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마리나는 6월까지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요트계류시설 18선석(50ft급), 부유식방파제 1개소, 배후부지 포장 등 부대시설공사에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강정 마리나 개발사업은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강정항 내 유휴공간에 관광, 휴양 등의 기능을 더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어촌지역의 발전 및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37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요트계류시설 5선석, 클럽하우스 1동 및 부대시설 1식 등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도가 지난해부터 강정 민간마리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5월과 7월 두차례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를 실시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올해 1월 세번째 재공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도는 강정 민간마리나가 활성화되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관광객과 연계해 해양관광의 새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자치분권 주요 법안 폐기 위기 직면

자치분권위-17개 시·도
20대 국회 통과 협력키로

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한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작년 3월29일 발의된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된 후 13개월 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후 지난 32년 동안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무책임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와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도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난달 28일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신협공동취재단

道,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도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구축비 일부 지원, 스마트 공장 우수기업 현장 견학,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을 향상하는 지능형 생산 공장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테크노파크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지하수 도민참여단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하수 도민참여단'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제주지하수 도민참여단은 지하수 이용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나가는 도민 중심의 협의기구다.

참여 희망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지하수 정보화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원 제출서류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모집 공고 종료 후 지역, 성별, 직업군 특성을 고려해 6월 초 30여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오은지기자

어린이날 추억 만들기 어린이날인 5일 제주시 연동 돈키쥬쥬 동물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동물을 직접 만져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가상 청와대'에 어린이 초대한 文…
"코로나19 극복 동참 여러분이 영웅"

어린이날 맞아 응원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중인 어린이들 여러분이 2020년의 영웅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씩씩하게 이겨내 주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제작된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 청와대를 구현, 특별 초청했다. 영상은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마인크래프트 포맷을 활용, 청와대 전경과 내부를 생동감 있게 구현했다.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블록을 활용해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게임계 레고로 불린다.

대통령 내외는 목소리 녹음, 영상 촬영을 통해 직접 참여했다. 영상 속 캐릭터로 등장해 어린이들을 안내하며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영상 속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를 이기는 영웅"이라며 "2020년, 오늘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우리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에 제작한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맵'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누구나 청와대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도심에 쏠린 상권… 읍면도 뜬다

제주도·관광공사 분석 결과
상권 35% 도심 집중에도…
일부 읍면 상권 활성화 눈길

도심지역에 집중됐던 제주지역 상권이 읍·면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주 관광상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상권의 35.2%는 제주시 노형동(15.3%)·연동(12.7%)·이도2동(7.2%) 등 도심권에 몰려 있었으나, 일부 읍·면 지역 상권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신용카드 매출이 성장한 지역은 추자면·애월읍·조천읍·한림읍·구좌읍·안덕면·성산읍·대정읍·남원읍·효돈동 등이다.

침체국면에서 성장국면으로 전환된 지역은 우도면·표선면·송산동·중앙동·천지동 등이다.

주중에는 제주시 아라동·화북동·연동 상권이 더 활성화됐으며, 일도1동·삼도2동·안덕면·예래동은 주말 상권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상권 활성화 이유로 제주시 아라동·화북동·연동은 제주도 인구가 집중되고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도1동은 전통시장, 삼도2동은 관광호텔, 안덕면·예래동은 중문관광단지가 있어 관광객이 주말에 많이 찾으면서 주말 상권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형동은 면세점 매출이 가장 높았으며, 연동 렌터카, 구좌읍·정방동·안덕면·송산동·예래동·표선면은 한식 매출이 가장 높았다.

우도면·예래동·중문동·안덕면·표선면은 관광객이 지역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렌터카로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세점 89%, 숙박업 84%, 한식 5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민 및 관광객(제주 거주 여부 기준)의 신용카드 거래 정보 1219만2787개가 이용됐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농업성공대학(원)」 수강생 모집

:: 「2020년 농업성공대학(원)」 개요 ::

농업성공대학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주농업인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주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교육 과정**」입니다.

개강일	교육기간	강의시간	참여농협
2020년 5월 하순 (농협별 일정에 따름)	5월 말 ~ 10월 말	17:00 ~ 19:00 (매주 2시간)	9개 농협

※ 참여농협 : 조천, 함덕, 한림, 한경, 고산, 김녕, 구좌, 애월, 하귀

:: 모 집 요 강 ::

1. 모집개요

인원	모집기간	모집지역
600명 (농협별 60명 내외)	'20. 5. 4 ~ 5. 13	제주시 (참여농협 관내)

2. **지원자격** : 제주시(읍·면 포함)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참여농협별 선발 기준에 따름
3. **지원방법** : 자필 입학원서(소정양식) 작성 후 해당 농협에 제출
4. **수료자 혜택** : 행정기관 각종 보조사업 가점 부여
5. **문의사항** : 참여농협 지도팀(지도담당)

신창중학교총동창회
2020년 정기총회 개최안내

경자년을 맞이하여 총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창중학교 총동창회 2020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5월 14일(목) 19:00**
○ 장 소 : **한라수목원 뷔페 (수목원 주차장 옆)**
○ 안 건 : 회장단 선출 및 19년 회기 결산 등
○ 연락처 : 사무국장 김형준 010-8664-7664

신창중학교총동창회
회 장 김 동 석

빙의·신들림 증세요!
(귀신들림) (신병)
병원에서 해결안되는 원인을
알수없는 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희 소 식"

◈ 남녀노소 빙의 증세! 신들림 증세~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특히 초등생, 중고등생, 대학생, 어린이 등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빙의 증세가 있으면 인생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해줘야함! (개인의 불행이 가족의 불행입니다!!)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해결안되신 분들 환영! 문제증상 해결로 보답드립니다!
◈ 정직과 신뢰 그리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영적기운을 몸안에서 확실하게 분리시켜 해결해드림.
◈ 원격 분리천도 가능(환자가 직접 오지 않아도 가능함)
◈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3층 / 064)746-0789

묘지터 주인을 찾습니다

묘지터 주소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008
묘지터 면적 132㎡
묘지터 여건 묘를 이장한 곳(그 당시 공간)

1998년 9월 13일자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008번지에 부친님을 모셨습니다. 매년 벌초때마다 묘지터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린것이 22년이 되었습니다.

위 장소의 묘지터 주인을 알고계시거나 후손들께서는 연락부탁드립니다.

2020. 5. 6.

연락처 010-8996-4948 064)743-1102